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이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Influence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on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i-Sun 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유리더십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중소도시인 I, J시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189명이다. 연구도구는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에 대한 빈도분석,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변인 간의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이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은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전체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자기성찰지능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와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설계, 자기반성,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순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공감능력 전체는 정적관계가 있었다.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공감의 하위영역인 상상하기, 관점 취하기 순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에서는 공감적 관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는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능력인 상상하기, 관점 취하기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설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on using it as basic data for program development of shared leadershi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9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I and J cities. Questionnaires on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used as a research too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found to be above average. Second,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 overall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the empathic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ird, the self-understanding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has the highest influence on the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gnitive empathy, imagining, and taking perspective have the next level of influence, followed by self-design of self-reflection intelligence.

Keywords :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Self-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Teacher

이 논문은 2021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Ji-Sun Ma(Wonkwang Health Science Univ.)

email: jisunsky@wu.ac.kr

Received December 8, 2021

Revised December 15,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조직구성원이다.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유아교육기관은 소규모 구성원으로 개인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아교사들은 동료교사들과 전문성 교류 및 공동작업을 위한 협력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1,2].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유아교육기관의 발전 추구 및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구성원의 리더십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3].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팀 리더 개인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리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팀원 전체가 주도적으로 리더십 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4]. 즉, 개인 리더만의 역할이 아닌 조직구성원들의 활동에 의한 공유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5].

공유리더십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구성원들, 즉 다수 리더에 의해 리더십이 발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6,7].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성취를 위해 집단 내에서 개인 간 역동적이고 조직구성원들 간의 영향력이 분산되고 공유됨으로서 발휘되는 리더십으로[4,8,9] 한 명의 공식 리더가 아닌 조직구성원들 상호 간의 지속적이고 동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것이다[3,10].

조직구성원 간 역량이 향상되고 상호 영향력이 발휘되는 공유리더십은 구성원들과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독단적 1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 아닌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11]. 즉, 조직구성원들이 함께 발휘하는 공유리더십은 각자의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외부가 아닌 자발적인 조직의 공동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함께 탐색해가며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조직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수행하게 되는 공유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성과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0,12-14].

반면, 학교라는 조직은 학교장이라는 1인 리더에 의한 절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3] 유아교육기관도 이와 다르지 않게 원장이 교사들의 인사관리를 비롯한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 조직에서 리더십의 특징은 다른 조직에 비해 리더 1인이 모든 것을 이끄는 것보다는 원장과 교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평적 인간관계의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2]. 교사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책임감을 지니고 리

더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구조이다[3]. 즉, 공유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Lieberman과 Miller는 바람직한 교사리더십에 비추어볼 때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교사들이 솔선수범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동료교사들과 서로 전문성을 주고받으며 집단지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교사 상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5]. 즉 교사들 간의 실패와 성공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16]. 이러한 특성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공유리더십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유리더십은 각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 내적인 성향과 더불어 타인과 교류할 때 요구되는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개인의 내적수양을 통해 타인과의 조화 및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오는 자기성찰지능은 부정적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키므로[17] 다른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은 부모, 원장, 동료 교사, 기타 교직원들과의 다양한 업무 속에서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자기성찰지능은 개인 내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이 조직구성원 간 상호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이 향상되는 공유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반면 유아교사는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18].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 주어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예측하고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해 주고 다른사람과 원활한 관계형성 및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19] 공유리더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초등과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있을 뿐이다[3, 20].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공유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유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이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소도시인 I, J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사전에 전화로 연구 취지를 알리고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지의 답변이 불성실한 21부를 제외하고 총 189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89)

Variable	Respondents	Percentage	
Age	≤25	14	7.6
	26-30	47	25.4
	31-35	25	13.5
	36-40	35	18.9
	≥41	64	34.6
Career	≤3년	46	24.8
	4-6	60	32.5
	7-9	33	17.8
	≥10	46	24.9
Education	College(2 year)	52	28.1
	College(3 year)	50	27.0
	University	71	38.4
	Graduate school	12	6.5
Typ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Kindergarden	70	38.4
	Day care center	114	61.6

2.2 연구도구

2.2.1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공유리더십 측정을 위하여 Hiller, etal(2006). Kang[21], Cha[22], Park[23], Hwang[24], Koo[25]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한 LI[26]의 공유리더십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계획과 조직화' 6개 문항, '문제해결' 7개 문항, '지원과 배려' 6개 문항, '개발과 멘토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25문항이다. LI[26]의 연구에서는 7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유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계획과 조직화 Cronbach'a .90, '문제해결' Cronbach'a .91 '지원과 배려' Cronbach'a .87 '개발과 멘토링' Cronbach'a .89 전체는 Cronbach'a .96으로 나타났다.

2.2.2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

자기성찰지능은 An & Oh[17]가 개발한 성인용 자기성찰 지능 척도를 Choe[27]가 유아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반성 6문항, 자기이해 9문항,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12문항, 자기설계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찰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자기반성이 Cronbach'a .67, 자기이해 Cronbach'a .83,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Cronbach'a .83, 자기설계 Cronbach'a .86, 전체 Cronbach'a .93으로 나타났다.

2.2.3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Kang[2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가 각 7문항씩 구성된 인지적 공감 14문항과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각 7문항씩 구성된 정서적 공감이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8문항이다.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관점취하기 Cronbach'a .79 상상하기 Cronbach'a .84, 인지적 공감 Cronbach'a .81, 공감적 관심 Cronbach'a .88, 개인적 고통 Cronbach'a .74, 정서적 공감 Cronbach'a .75, 공감능력 전체는 Cronbach'a .77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량팽창계수(VIF), Durbin-Watson값을 산출하였다. 변량팽창계수(VIF)는 1.000~1.957 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1.522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값 간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2에 근접하므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의 정도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M=3.87$), 자기성찰지능($M=3.83$)과 공감능력($M=3.30$)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of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N=189)

Variable		M	SD	
Shared leadership	Plan & organizing	3.86	3.27	
	Problem solving	3.81	3.84	
	Support & consideration	3.92	3.22	
	Development & mentoring	3.89	3.34	
	Total	3.87	12.13	
Intrapersonal intelligence	Self-reflection	3.96	2.47	
	Self-understanding	3.92	3.84	
	Self-regulation & emotional regulation	3.75	5.23	
	Self design	3.75	4.14	
	Total	3.83	13.57	
Empathic ability	cognitive empathy	Taking perspective	3.64	3.31
		To imagine	3.33	4.65
		Total	3.48	6.46
	emotional empathy	Empathic concern	3.48	3.35
		Personal suffering	3.12	3.50
Total	3.30	4.85		
Total		3.40	9.40	

3.2 유아교사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사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전체는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648, p<.001$).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전체는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영역에서 자기이해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590, p<.001$), 자기설계($r=.572, p<.001$), 자기반성($r=.554, p<.001$),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r=.535, p<.001$) 순으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공감능력 전체는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546, p<.001$). 인지적 공감($r=.638, p<.001$)과 정서적 공감($r=.206, p<.001$)과도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공감의 하위영역인 상상하기($r=.525, p<.001$), 관점취하기($r=.508,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Table 3. The Relationship of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 Empathic ability (N=189)

shared leadership		planning and organizing	problem solving	support and consideration	development and mentoring	Total	
intrapersonal intelligence	Self-reflection	.48***	.457***	.503***	.523***	.554***	
	Self-understanding	.524***	.580***	.487***	.493***	.590***	
	Self-regulation & emotional regulation	.448***	.507***	.497***	.439***	.535***	
	Self design	.512**	.535**	.464**	.512**	.572**	
	Total	.565**	.605**	.561**	.560**	.648**	
empathic ability	cognitive empathy	Taking perspective	.451**	.444**	.522**	.390**	
		To imagine	.404**	.445**	.516**	.499**	.525**
		Total	.522**	.548**	.639**	.559**	.638**
	emotional empathy	Empathic concern	.365**	.355**	.468**	.383**	.441**
		Personal suffering	-.211**	-.169**	-.010	-.083	-.136
Total	.411**	.441**	.603**	.491**	.546**		

*** $p<.001$

3.3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의 영향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 하위요인은 자기이해가 34.5%로 가장 높은 영향력 ($F=97.842, p<.001$)을 지니고, 상상하기가 9.0%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총 43.5%의 영향력을 지니고($F=30.314, p<.001$), 관점취하기가 3.7%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47.2%의 영향력을 지니고($F=13.600, p<.001$). 자기설계는 2.7%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49.9%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831, p<.001$).

Table 4. The Effect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 Empathic ability on Shared leadership (N=189)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 ²	ads R ²	F
Shared leadership	(constant)	30.919	6.685		4.625			97.842
	Self-understanding	1.866	.189	.590	9.892***	.348	.345	
	(constant)	26.253	6.264		4.191***			30.314
	Self-understanding	1.419	.193	.449	7.355***	.441	.435	
	To imagine	.876	.159	.336	5.506***			
	(constant)	18.746	6.391		2.933**			13.600
	Self-understanding	1.041	.213	.329	4.890***	.480	.472	
	To imagine	.824	.155	.316	5.336***			
	Taking perspective	.864	.234	.236	3.688***			
	(constant)	16.898	6.249		2.704***			10.831
	Self-understanding	.579	.251	.183	2.310**			
	To imagine	.750	.152	.288	4.928***	.510	.499	
Taking perspective	.816	.229	.223	3.570***				
Self design	.703	.214	.240	3.291**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목적은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 능력은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등교사의 공유리더십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 [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Lee[1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이 보통이하로 분석된 Seo & Kim[2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예비유아 교사의 공감능력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연구[30]와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전체는 관계가 있었다. 특히, 자기성찰지능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설계, 자기반성,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순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명료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통제력이 높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기[27] 때문에 다양한 조직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유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교사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민감성 저하를 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31] 조직구성원과 공유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공유리더십이 조직의 목표성취를 위해 집단에서 개인 간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9]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교사가 교직원들과 공동 목표달성을 공유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자기성찰지능이 교사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려 한다[32]는 점에서 볼 때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공유리더십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결과이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공감능력 전체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적 속성이 높은 공유리더십은 리더 한사람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것으로[33]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된 것처럼 지각하는[34] 공감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결과이다. 또한 공감능력이 조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5]를 비추어 볼 때, 공유리더십이 조직문화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는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인 상상하기, 관점취하기가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설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성찰지능 중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각성과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 능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기이해

능력이[27]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인의 능력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유리더십에 자기이해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상하기와 관점취하기는 인지적 공감의 하위요인이다.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27] 자발적으로 타인의 심리적인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취하기와 허구의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상상하기가[31] 다른사람들과 조직의 공동목표성취를 위해 공유리더십을 발현하게하는 유용한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에서 초등학교 성공의 비결이 공유리더십이고 공동의 목표지향점을 공유할 때 교사들이 그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20] 공동의 목표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인지적 공감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설계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목표설정 및 미래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에 대한 요인[34]으로 유아교사가 조직구성들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공유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 자기설계 및 공감능력의 상상하기, 관점취하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면 첫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은 보통이상이었다. 둘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셋째,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는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 인지적 공감능력의 상상하기, 관점취하기,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설계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양적분석 한 것으로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이 형성 및 출현에 대한 조직문화의 맥락적 이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향상을 위한 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구안 할 때 자기

성찰지능의 자기이해와 자기설계 및 인지적 공감능력인 상상하기와 관점취하기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공유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공유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하게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H. J. Kim, & H. S. Cho,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Teachers' Professional Culture to Foster Positive Collabor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6, No. 1, pp. 43-67, 2006.
- [2] J. S. Ma,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tyles for Conflict Management Type on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 pp. 495-501,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495>
- [3] S. Y. Lee, & E. S. Choi, "The Effect of the Head Teachers' Shared Leadership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11, No. 3, pp. 33-66, 2015.
- [4] J. F. Cox, C. L. Pearce, & M. L. Perry, Toward a model of shared leadership and distributed influence in the innovation process. In C. L. Pearce & J. A. Conger (Eds.), *Shared leadership: Reframing the hows and whys of leadership* Thousand Oaks, CA: Sage. 2003, pp. 48-76.
- [5] C. L. Pearce, H. P. Sims Jr, "Vertical versus Shared Leadership as Predictors of the Effectiveness of Change Management Teams: An Examination of Aversive, Directiv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and Empowering Leader Behavior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Vol. 6, No. 2, pp. 172-197, 2002
DOI: <https://doi.org/10.1037/1089-2699.6.2.172>
- [6] A. S. DeNisi, M. A. Hitt, & S. E. Jackson, The knowledge-based approach to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n S. E. Jackson, M. A. Hitt, & A. S. DeNisi(Eds.), *Managing knowledge for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pp. 3-33.

- [7] M. D. Ensley, K. M. Hmieleski, C. L. Pearce, "The importance of vertical and shared leadership within new venture top management teams: Implic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startups." *Leadership Quarterly*, Vol. 17, No.3, pp. 217-231, 2006.
- [8] J. B. Carson, P. E. Tesluk, J. A. Marrone, "Shared Leadership in Teams: An Investigation of Antecedent Conditions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50, No. 5, pp. 1217-1234, 2007.
DOI:<https://doi.org/10.5465/ami.2007.20159921>
- [9] C. L. Pearce, J. A. Conger, "Shared Leadership: Reframing the Hows and Whys of Leadership. Lond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03.
- [10] C. L. Pearce, C. C. Manz, & H. P. Sims, "The roles of vertical and shared leadership in the enactment of executive corrup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9, No. 3, 353-359. 2008.
DOI:<https://doi.org/10.1016/j.leaqua.2008.03.007>
- [11] N. J. Hiller, D. V. Day, R. J. Vance, "Collective enactment of leadership roles and team effectiveness: field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7, No. 4, pp. 387-397, 2006.
DOI:<https://doi.org/10.1016/j.leaqua.2006.04.004>
- [12] M. S. Park, H. K. Moon,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Knowledge Sharing among Groups", *Knowledge Management Review*, Vol. 5, No. 2, 1-23, 2004.
- [13] E. J. Moon, A. J. Hong, "The Effect of Community Learning Circle Memb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upon Knowledge Sharing and Mediation Effect of Shared Leadership",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20, No. 3, pp.109-136. 2014.
- [14] K. M. Nelson, & J. D. Coopridge, "The contribution of shared knowledge to IS group performance". *MIS Quarterly*. Vol. 20, No. 4, December, 409-426. 1996.
- [15] Lieberman, A. & Miller, L. *Teacher-Leadership*.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pp. 1~14.
- [16] J. R. Han,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on Team Performance and Team Commitment of Team-Bas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Team Trus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303-311. 2016.
DOI:<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303>
- [17] C. Y. An, M. K. Oh, "The Development of an 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for Adults", *The Korea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20, No. 1, pp. 51-78. 2013.
- [18] M. K. Le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8-25. 2020.
- [19] H. J. Bang,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safety climate on team performance, team commitment and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the role of team reflexivity as a mediator*,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pp. 25-40. 2013.
- [20] H. J. Song, Hee-Ji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Competence and Emotional Expressivity on Their Resilience*. Ph.D dissert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pp. 7-13. 2020.
- [21] E. G. Kang, "A Study on the effect of Shared Leadership to Team Efficacy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imilarity and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Type". Master's thesi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pp.6-50, 2018.
- [22] H. J. Cha, *A Study on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Authentic Leadership, and Self 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Academic Librarians*.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p. 20-24, 2017.
- [23] Y.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on Customer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Ph. D dissert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pp. 5-9. 2019.
- [24] S. O. Hwang, *The effect of shared leadership on team creativity in R&D project team-The mediating effects of team efficacy, team-based learning and team trust*. Ph.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pp.6-18. 2020.
- [25] I. S. Koo, *The Effect of Shared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hange 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MX*.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pp. 11~28. 2020.
- [26] M. Li,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hared 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rganizational Commitment, Innovation Behavior, and Management Performance. Focused on 5 Star Hotels in Chongqing*, Ph.D dissertation, Woosong University. pp. 11-24. 2020.
- [27] S. H. Choe, "The tendency and relationship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kindergarten teachers",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Vol. 3, No. 1, pp. 55-71. 2018.
- [28] M. J. Ka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competence and emotional expressivity on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pp.7-14. 2020.
- [29] E. S. Seo, M. S. Kim, "The Mediation Effect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Interpersonal Skills of Childcare Teach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124, pp. 93-116. 2020
- [30] J. S. Park, "The Study on Variables which Affected Empathy and Happiness of Pre-service Early

- Childhood Teachers: Focused on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1, 97-118. 2015.
- [31] M. Wang, *The Effect of Daycare Teachers’ Job Stress on Teachers’ Sensitivity : The mediating effects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5.
- [32] H. H. Jeon, & B. Rhee, “The Effects of an Childcare Teacher’s Intrapersonal Intelligence on Childcare of Infant’s Right Respect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rofessionalism”,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9, no.3, pp. 47-56, 2019.
DOI: <https://doi.org/10.21213/kicec.2019.19.3.47>
- [33] S. Y. Le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rincipals’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Teachers’ Shared Leadership, Learning Organization Cultu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chool*. Ph. 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pp. 46~49, 2020.
- [34] J. Yun, & B. C. Kim, “How does school succeed?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Shared Leadership of ‘A’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5,no.4,pp. 191-222, 2018.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8.35.4.191>
- [35] H. J. Kim, & Y. A. Baek,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and empath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2, no.1, pp. 53-72, 2017.
DOI : <https://doi.org/10.16978/eccec.2017.12.1.003>

마 지 순(Ji-Sun Ma)

[정회원]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관심분야〉

유아 교사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 인성교육